

신정아씨 자서전서 주장한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 과정

“이용우씨가 광주일보에 ‘가짜 학위’ 제보”
이용우 재단부이사장 “터무니없는 거짓말”

“정말 적은 가짜인데 있었다. 광주일보에 (신정아의 학위가 가짜라는 것을)제보한 사람은 다른 아닌 이용우 (현 광주비엔날레 재단 상임부이사장)이었다.”

신정아(39)씨가 최근 자서전 ‘4001’에서 별도로 ‘광주비엔날레’ ‘대서특필’이라는 제목의 장을 만들어 감독 선임 배경과 ‘가짜 박사’가 탄로나 언론의 질타를 받고 해임됐던 과정을 기록했다.

흥미를 끄는 대목은 신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변양규 전 청와 정책실장이 한갑수 전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이유와 사건이 불거진 계기는 당시 이사였던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 이용우 상임부이사장이 광주일보에 제보했기 때문이라는 대목이다.

신씨는 책을 통해 “(2007년)6월 27일~(전)한갑수 이사장이 인터뷰를 요청해왔다...똥아저씨에게 내가 들어가서 인터뷰를 할 필요가 있는지...분위기를 알아봐 달라고 했고, 똥아저씨는 경계기화된 선배인 한갑수 이사장에게 전화를



‘신정아의 감독 선정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또 신씨는 “이용우 이사는 오쿠이 엔위저를 단일 감독으로 추천한 사람이었다...기자회견을 하고...함께 점심을 했는데...이용우 선생이 내게 불편한 삼기를 드러내며 비아냥거리는 것이다”라며 자신의 거짓 행각이 들뜬 배경을 이용우 이사의 제보로 꼬았다.

이에 대해 이용우 상임부이사장은 “언론 제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며, 오쿠이 엔위저(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유학과치고는 신씨의 영어가 너무 엉성해 의아해 하긴 했다”고 반박했다.

했다.”고 밝혔다.

변양규 전 실장과 한갑수 이사장의 전화통화가 인사 청탁이 아닌

(실제로 지난 2007년 7월 신씨의 가짜 박사 학위 파문 당시 광주일보 취재진은 이용우씨로부터 어떠한 제보도 받지 않았다)

▲신정아 사건은= 신씨는 지난 2007년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에 선임됐지만, 미국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서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이사회에서 자신을 추천했던 이종상(전 서울대 교수) 전 이사에 대해서 신씨는 “(비자금 문제로) 김석원(전 쌍용그룹회장) 회장이 구속이 되었을 때...(이종상 이사는) 나를 만나 탄원서에 서명해주셨던 분이요”고 소개했다.

신씨는 또 “(2007년 7월1일)한갑수 이사장은 나의 적극적인 자세를 마음에 들어 했고, 다음날 오후 공동감독으로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혀 당시 재단의 영성했던 감독 선임 절차를 기록했다.

이후에 대해 이용우 상임부이사장은 “언론 제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며, 오쿠이 엔위저(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유학과치고는 신씨의 영어가 너무 엉성해 의아해 하긴 했다”고 반박했다.



장성군은 지난 겨울 구제역 방역초소 15곳을 운영하면서 초소난방에 숯가르기 부산물을 활용해 7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구제역 초소 ‘폐목 난방’ 예산 절감

장성군, 7천만원 아껴

장성군(군수 김양수)이 지난 겨울 구제역 방역초소를 운영하면서 난방을 위해 경우대신 숯가르기 부산물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해 일석이조의 성과를 올렸다.

장성군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 후 12월 3일 방역초소를 처음 설치, 최근까지 15개 초소를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난방 예산 7000여만원을 절약했다고 28일 밝혔다.

절감액은 구제역 초소 1개소에 하루 평균 40ℓ의 등유가 소비되고, 등유 1ℓ에 1300원대임을 감안해 구제역 차단방역이 계속된 시점까지 사용 일수를 계산한 수치다.

군은 숯가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부산물과 지역내 목재관련업체에서 기탁한 참나무 등 잡목 50여톤을 펄개로 사용해왔다. 군이 방역초소

난방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초기의 펄개비용 160여만원이 전부다.

특히 녹색장성이 이미지에 걸맞게 등유 대신 친자연적인 펄개를 사용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매연도 발생하지 않아 초소 근무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방역 장기화에 따라 방역초소를 모범적으로 잘 운영했다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지자체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최근 상무대와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 상호 문화체육시설을 개방해 이용하기로 함에 따라 당장 시급한 공설운동장 신축비 200여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중부취재본부=김홍호기자 yongho@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5분 해질 18시 51분 달뜨기 03시 19분 달짐 14시 07분

한낮엔 봄 햇살

대기불안정에 의해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Table with 2 columns: Location and Temperature. Locations include Gwangju, Mokpo, Yeosu, Naju, Wando, Gurye, Jeonju, Jeonnam, Jeonbuk, Gyeonggi, and Jeju. Temperatures range from -3.12C to 2.12C.

Table with 4 columns: Sea Area, Direction, Wind Speed, and Visibility. Includes areas like Seha, Namhae, and Jeonnam.

Table with 4 columns: Sea Area, Direction, Wind Speed, and Sunrise/Sunset times. Includes areas like Seha, Namhae, and Jeonnam.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5 columns: Day, Day Type, Weather, and Precipitation. Days shown are 30th, 31st, 4th, 2nd, 3rd, and 4th of the month.

세종고 평준화 여고로 전환

광주교육청 2013년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세종고가 오는 2013년부터 평준화 여고로 전환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세종고 특수지학교(평준화 비적용) 지정해지 평

가위원회를 열고 평준화 고교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시 교육청은 심의위원 16명 중 15명이 평준화 전환에 적합의견을 냈으며 이 가운데 10명은 2013년 개교에 동의했다.

시 교육청은 광산지역 내 8개 고교 중 2개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돼

일반계고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데 특히 여고가 한 곳도 없어 평준화 여고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평준화 대상 고교는 일반계고 45개교로 1975년 지정 이후 85년 2개교(정광-보문)가 전환됐으며 26년만에 이번에 추가 지정됐다. 세종고 평준화 전환으로 광주에서 자체 학생발 등을 하는 특수지 학교로는 광산 일곡의 광일고 한곳만 남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 (Kjhr) insurance. Features a knight on a horse, the slogan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Use good hearing aid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oul, Suncheon, and Mokpo branches.

Advertisement for Seoul University Hospital (서울우리병원). Features a family photo, the slogan '환자맞춤형 척추질환치료' (Customized spine disease treatmen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uncheon branch.